

합류시대의 행동수칙을 따르는 것이 최고로 고결한 존재가 되는 길이다.

오늘 밥다다는 최고로 높은 행동수칙을 전부 다 따르는, 최고로 고결한 존재인 자녀들을 보고 있다. 합류시대의 행동수칙은 너희를 최고로 고결한 존재로 만든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최고로 높은 행동수칙을 따르는 최고로 고결한 존재라고 불린다. 타모구니한 인간 영혼들, 타모구니한 분위기와 파동으로부터 안전하게 머무는 제일 쉬운 길은 행동수칙을 따르는 것이다. 행동수칙의 선 안에 머무는 자들은 애써야 하는 데서 벗어나 한결같이 자유롭게 지낸다. 생각, 말, 행위로 행동수칙의 선 밖에 발을 내디딜 때 너희는 애를 써야 한다. 너희는 모든 발걸음에 대해 밥다다에게서 행동수칙을 받았다. 행동수칙에 따라 매 발걸음을 디딤으로써 너희는 자동적으로 최고로 높은 행동수칙을 따르는 최고로 고결한 인간들이 된다. 암릿 벨라부터 밤까지 행동수칙을 기반으로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은 아주 잘 안다. 이것들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가장 고결한 인간이 되는 길이다. 이름 자체가 “가장 고결한”이므로 그것은 너희가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높다는 뜻이다. 그러니 고결한 영혼인 너희들의 주된 것, 즉 너희의 의식이 고결한지 점검해라. 너희의 의식이 고결하면 그때는 너희의 태도, 시선, 단계가 자동적으로 고결해진다. 의식에 대한 행동수칙의 선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고결한 영혼이다” 그리고 “남들 모두 고결한 한 분의 아버지에게 속하는 영혼들이다”라는 것이다. 다양한 영혼들이 다양한 배역들을 연기한다. 이 첫 학과목이 자연스럽게 너희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게 해라. 몸을 볼 때조차 오직 영혼만 보라. 강력한 이 의식이 매 1초1초마다 실제 형태로 있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의식의 화신이 될 것이다. 그저 “나는 영혼이고, 상대방은 영혼이다” 또는 “나는 틀림없이 영혼이고 저 사람도 역시 분명히 영혼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지는 마라. 첫 번째 의식인 이 행동수칙은 너희를 변함없이 장애에서 자유롭게 하고 너희는 이 고귀한 의식의 강력한 파동을 퍼뜨리는 도구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남들도 역시 장애를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판다바 군대가 만남을 축하하려고 왔다. 만남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첫 번째 행동수칙의 기반인 “기억의 화신이 되어라”라는 축복을 갖고 돌아가라. 이 의식이 너희에게 힘을 가져다준다. 너희가 이제껏 들어온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갖고 돌아갈 핵심요점은 무엇이나? 핵심요지는 의식의 화신이 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암릿 벨라에 이 축복을 끊임없이 복습해라.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이 축복의 강력한 자리에 앉아서 그 과제가 낭비적인지 강력한지 여부를 판단해라. 그 다음에 행동해라! 행위를 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했는지 점검해라. 그렇지 않으면 비록 많은 자녀들이 강력한 형태로 행위를 시작하지만, 중간이나 어느 시점에 그 행위가 낭비적이거나 평범해지는지, 강력하던 데서 자기들이 낭비적이거나 평범한 행위를 행하는 방향으로 갔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마지막에야 그들은 마땅히 했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느냐?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시간의 세 측면을 아는 영혼의 자격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식의 화신이 되어라, 즉 시간의 세 측면 모두에 대한 힘의 화신이 되어라. 너희가 뭘 갖고 돌아가야 할지 이해하느냐? 결코 강력한 단계의 너희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 자리는 백조의 자리다. 백조의 특질은 식별하는 힘에 있다. 식별하는 힘이 있을 때 너희는 최고로 높은 행동수칙을 따르는 최고로 고결한 인간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계속 전진할 것이다. 자리에 대한 이 축복과 “최고로 높은 행동수칙을 따르는 최고로 고결한 인간”이라는 신이 내려준 칭호를 변함없이 항상 지니고 다녀라. 앗차, 너희가 봉사하러 가기 때문에 오늘은 단지 인사만 하는 날이다. 너희는 세속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의 봉사 장소에 갈 것이다. 너희는

황새들 가운데로 갈 테지만 그러나 봉사를 위해서 간다. 카르마의 잔고에 의한 관계 때문에 그리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봉사의 관계라고 생각해라. 너희가 거기 있는 것은 카르마의 잔고를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카르마의 부채가 아니라, 봉사의 굴레다. 앗차.

낭비적인 것을 끊임없이 끝내고 백조의 단계에서 강력한 자리에 안정해 머무는 자들에게, 시간의 세 측면을 아는 자라는 것을 의식하며 모든 행위에서 시간의 세 측면 모두를 강력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영혼의식의 단계에 변함없고 자연스럽게 머무는 자들에게, 최고로 높은 생동수칙을 따르는 그렇게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

1) 너희는 한결같이 가장 고귀하고 복 많은 영혼으로 제 스스로를 경험하느냐? 행운의 공여자를 아버지로 둔 자들은 대단한 행운아일 것이다! 아버지가 행운의 공여자이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겠느냐? 그는 틀림없이 너희에게 고귀한 행운을 주지 않겠느냐? 항상 행운의 공여자, 아버지를 기억해라. 의식 속에 너희의 고결한 행운을 지닐 때 너희는 남들도 복 많이 만들려는 열성과 열의도 역시 가질 텐데 너희는 공여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행운의 공여자, 아버지는 브라마를 통해서 행운을 나눠주었다. 그러니 브라민인 너희는 뭘 하겠느냐? 브라마의 과제는 뭐든 너희 브라민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한 행운을 나눠주는 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옷가지, 음식과 물을 나눠주지만, 오직 공여자의 자녀들만이 고귀한 행운을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너희들은 행운을 나눠주는 고결하고 복 많은 영혼들이다. 행운을 성취한 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만일 오늘 너희가 사람들에게 옷가지를 준다면 내일 그들은 음식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내일 그들에게 음식을 준다면 그 다음에 그들은 물이 부족할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가 한 가지씩 차례로 계속 나눠주겠느냐? 그것을 통해서는 그들이 충족될 수 없지만, 만일 너희가 복을 나눠준다면, 그 경우엔 복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어떤 경우든 어떤 이가 뭔가를 성취하면 그는 “와 나의 행운!”이라고 외친다. 행운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달성된다. 이렇게 너희는 고귀한 행운을 기부하는 자들이다. 고결하고 위대한 기부자이며 고결하고 복 많은 영혼이라는 의식은 너희가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단계에 머물게 할 것이다. 고귀한 행운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모든 성취에 대한 의식이 있을 것이다. 이 행운을 나눠주는 데 관대해져라. 이것에는 끝이 없다. 뭔가 아주 조금만 있을 때는 사람이 그것에 인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없으므로 너희는 계속 그것을 나눠줘야 한다. 끊임없이 계속 줘라. 기부하지 않고 지나는 날이 단 하루도 없게 해라. 한결같은 기부자들은 그들의 보물창고를 변함없이 활짝 열어둔다. 그들은 단 한 시간도 기부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브라민들의 의무는 이 지식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기부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 과제에 몰두해서 지내라.

2) 너희들은 끊임없이 다이아몬드처럼 값진 합류시대 영혼으로 제 스스로를 경험하느냐? 자녀인 너희 모두 참된 다이아몬드가 아니냐? 다이아몬드는 대단히 귀중하다. 너희들의 브라민 생도 역시 대단한 가치를 지녔고 이런 이유로 브라민들은 항상 봉우리의 꼭대기에 묘사된다. 봉우리는 최고로 높은 곳을 의미한다. 사실 신인들이 제일 높지만, 너희 브라민들은 신인들보다도 더 높다. 너희는 그런 도취감을 느끼느냐? 너희는 아버지에게 속하고 아버지는 너희에게 속한다는 지식을 너희는 갖고 있지 않느냐? 항상 그저 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나는 성취하기를 원하던 것을 성취했네!”라는 이 노래를 불러라. 물리적으로 노래를 부르면 한 시간 후에는 너희가 지칠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는 데는 지칠 일이 없다. 아버지에게 속함으로써 너희는 무용수, 가수, 화가, 뭐든지 다 된다. 너희들은 실제로 너희들의 천사 형태의 형상을 만들고 있다. 지각의 요가로 너희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에 대해 말하든 그 모든 것이 다 된다. 너희는 최고의 사업가들이며 방앗간 주인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이 직업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지내라. 때로는 광산의 주인이 되고 때로는 화가가 되어라. 때로는 무용수가 되어라. 이 지식은 무미건조하지 않고 아주 재미있다. 너희들 중 일부는 날마다 영혼과 지고의 영혼에 관한 똑같은 지식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과 지고의 영혼에 대한 무미건조한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지식이다. 그저 매일 너희들의 새로운 칭호들을 기억하기만 해라. 나는 영혼이다, 하지만 나는 어떤 유형의 영혼인가? 때때로 나는 화가 영혼이다, 때로는 사업가 영혼이다. 이처럼 대단한 재미를 느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아버지가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그가 때로는 어떻게 세탁부가 되고 때로는 세계의 창조자가 되며 때로는 순종적인 하인이 되는지 보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자녀들 역시 그러하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식을 되새기며 명량한 상태를 지속해라.

현재의 때에 따라 자아의 속도와 봉사에 대한 속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너희가 이제껏 받은 봉사의 정도만큼 보답하고 있는지 여부를 각자 생각해봐야 한다. 이제 봉사할 때다. 너희가 더 발전하면서 봉사의 적기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에는 갖가지 역경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역경들 속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부터 봉사하는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때에는 오가기 어려울 것이고 너희는 마음을 통해서 남들이 전진하게 만드는 봉사를 해야 한다. 그것은 너희 스스로를 채울 때가 아닌, 줄 때일 것이다. 그러한즉 미리 너희의 재고를 점검해라. 너희는 모든 힘을 비축하여 너희들 스스로를 채웠느냐? 한결같이 모든 힘, 모든 미덕, 지식의 모든 보물들, 기억의 힘으로 충만한 상태로 머물러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라. 앗차.

4 월 28 일 사트구루의 날에 밥다다가 암릿 벨라에 하신 인사 말씀 .

나무의 씨앗의 날에 인사를 보낸다. 변함없이 의식의 화신으로 머물며 나무의 씨앗의 날에 목성의 징조를 끊임없이 경험해라. 이제 너희들 모두 굳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일단 쿠마르들의 그룹이 준비되면 소리가 크게 퍼질 것이다. 소리는 정부에까지 도달할 테지만, 오직 너희가 항시 바바와 함께 머물러야만 그럴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너희에게는 아주 좋은 열성, 열의, 용기가 있다. 용기가 있는 곳에서는 너희가 틀림없이 도움을 받는다. 삭티인 너희들은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느냐? 심지어 쉬바조차 삭티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만일 쉬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삭티들이 없을 것이고, 삭티들이 없다면 쉬바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팔들이 없이 아버지인들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누가 첫 번째 팔들이냐? “경이로운 나! 그건 저입니다!” 앗차.

신의 사랑 속에 끊임없이 잠겨 있어라 (고귀한 아비약트 말씀)

신의 사랑을 경험해라, 그러면 이 경험을 가짐으로써 너희는 쉬운 요기가 되어 계속 날아다닐 것이다. 신의 사랑은 너희를 날게 만드는 수단이다. 날고 있는 자들은 지구의 중력에 끌릴 수 없다. 마야의 모습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 유인은 날아다니는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칠 수 없다. 신의 사랑의 이 끈은 머나먼 곳에서도 너희를 끌어당긴다. 이 사랑에 단 1초라도 넋을 잃게 되는 자들은 모든 슬픔을 잊고 끊임없이 행복의 그네를 타기 시작할 정도로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기쁨을 주는 사랑이다. 만일 너희가 평생 원해온 것을 누군가 준다면 그것은 사랑의 징표다. 아버지는 삶 속에서 행복과 평화에 대한 너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줄 만큼 너희 자녀들에 대해 극진한 사랑을 갖고 있다. 그는 너희에게 행복을 줄 뿐 아니라 너희를 행복이라는 보물의 주인으로 만든다. 이것과 더불어 그는 또 너희가 제각기 고결한 행운의 선을 더 확장시켜서 원하는 만큼 한껏 행운을 만들 수 있도록 너희에게 선을 그릴 펜도 역시 준다.

이것이 신의 사랑이다. 끊임없이 신의 사랑 속에 잠겨 있는 자녀들, 신의 사랑에 넋을 잃은 자녀들에게는 그 광채, 도취감, 경험의 광선들이 하도 강력해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오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는 감히 눈을 뜨고 그들을 쳐다볼 수조차 없다! 그들은 언제 어떤 식으로도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아버지는 암릿 벨라부터 자녀들을 부양할 만큼 그들을 극진히 사랑한다. 하루의 시작은 참으로 고귀하다! 신이 친히 만남을 축하하려고 너희를 부른다. 그는 너희들과 대화를 가지고 너희를 힘으로 채워준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부르는 노래가 너희를 깨운다. 그는 너희를 부르며 참으로 크나큰 사랑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귀여운 자녀들아, 오너라!” 라며 너희를 깨운다. 이 사랑의 부양에 의한 실질적인 형태는 쉬운 요기의 삶이다.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든 너희는 오직 그들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기분 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너희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난 기분이 나빠졌지”라는 말을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설령 언짢은 상황이라 해도 너희 스스로 기분 상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밥다다는 자녀들 각자가 그보다 앞서 있다고 여길 정도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크다. 세상에서도 역시 너희가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든 너희는 그 사람을 제 자신보다 앞에 세운다. 이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표시다. 그래서 밥다다도 역시 이르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나약함이 없게 해라. 모든 이가 이제는 완전하고 완성되고 대등해져야 한다.”

신의 사랑은 희열이 가득한 그네이니, 기쁨을 주는 이 그네를 끊임없이 타며 신의 사랑에 잠겨 있어라, 그러면 역경이나 마야의 격동이 없을 것이다. 신의 사랑은 끝이 없고 흔들림 없으며 모든 이가 다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넘쳐나게 많다. 하지만 신의 사랑을 늘리는 길은 초연해지는 것이다. 너희가 초연한 정도에 따라 너희는 그만큼 신의 사랑에 대한 권리를 차지한다. 신의 사랑에 잠겨 있는 영혼들은 결코 한정된 영향 아래 놓일 수 없으며 무한한 성취에 넋을 잃은 상태에 머물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변함없이 영성의 향기를 받을 수 있다. 사랑의 징표는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바친다는 점이다.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해서 사랑에 답하려고 너희들에게 날마다 참으로 긴 편지를 쓴다. 그는 너희에게 사랑과 기억을 보내주고 너희의 동반자로서 그는 동반자의 책임을 다한다. 그러니 이 사랑으로 너희들의 나약함을 모두 다 바쳐라.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을 사랑해서 항상, “자녀들아, 너희가 어떠하든, 너희가 무엇과 같든, 너희는 나의 것이다”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들 역시 한결같이 사랑에 잠겨 있으면서 진심에서 우러나 “바바, 당신이 어떠하든,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라 한다. 거짓된 왕국에 영향 받는 일이 결코 없게 해라. 너희들은 사랑하는 이를 의식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없으며 그 사람은 자연히 기억된다. 단지 너희 마음속에 사랑을 가져라, 그 사랑이 참된 것이며 이기적이지 않게 해라. 너희가 “나의 바바, 사랑스러운 바바”라 할 때 너희는 사랑하는 그 한 분을 잊을 수 없다. 너희는 아버지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결코 받을 수 없으므로 너희의 이기적인 동기로는 결코 그를 기억하지 마라.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속에 잠겨 있어라.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인 암릿 벨라부터 너희의 마음이 신의 사랑을 흡수하게 해라. 너희가 신의 사랑, 신의 힘, 신의 지식을 가슴 한가득 가진다면 그 경우 너희는 다른 누구에게도 결코 애착을 갖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번 한 생뿐이다. 83생 동안 너희는 신인 영혼들과 보통 영혼들에게서 사랑을 받는다. 너희가 신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영혼들의 사랑은 너희가 왕국에 대한 행운을 잃게 만드는 반면, 신의 사랑은 너희가 왕국의 행운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 이 사랑에 대한 경험 속에 잠겨 있어라. 너희가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질 때 그 참된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는 대등해지고 카르마티트가 되는 것이다. 카라반하르 (고취하는 이)로서 행위를 행하고 남들도 역시 고취해라. 너희의 신체기관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행하게 만들게끔 허용하지 말고, 너희의 신체감각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라. 너희의 마음, 지각, 산스카르의 영향을 받아 어떤 행위를 행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해라. 앗차.

Blessing: 행동하는 도구가 되어 카라반하르 (고취하시는 분)를 의식하며 전체 모든 과제들 중

제일 큰 과제를 쉽게 만들어라.

밥다다가 직접 카라반하르가 되어 카란하르 도구인 너희 자녀들을 통해 수립이라는 최대의 과제를 수행한다. “카란카라반하르”라는 용어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은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자녀들의 손과 아버지의 과업이다. 너희의 손을 내밀 황금의 기회를 받은 것은 오직 자녀인 너희들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경험은 너희를 고취하고 있는 그분이 너희를 도구로 만들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이다. 모든 행위에서 그는 카라반하르로서 너희의 동반자다.

Slogan:

기야니 영혼은 이것저것 요청하지 않고 변함없이 행복하게 머문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